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 및 친구관계와 우울간의 관계에서 자아정체감의 매개효과 : 공변량 구조분석*

이은희**·정순옥**

초 록

본 연구는 고등학생 482명을 대상으로 하여 부와 모의 애정적 양육행동, 과보호적 양육행동과 우울간에 관계에서 자아정체감이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공변량 구조분석 결과 부의 양육행동은 청소년의 자아 정체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모의 애정적 양육행동은 정적인 영향을 모의 과보호적 양육행동은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의 친구관계는 우울에 직접적으로 부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자아정체감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우울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 자아정체감이 매개변인임을 확인한 본 연구결과가 청소년 정서적 부적응의 예방과 상담적 개입전략에 어떤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지와 연구의 제한점 및 향후 연구방향이 논의되었다.

주제어 : 부모의 양육행동, 친구관계,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우울

* 본 논문은 2006년도 경남대학교 학술논문게재연구비 지원금으로 작성되었음

** 경남대학교 심리학과

I. 서 론

청소년기는 신체적 정서적인 사회적 측면에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로서 지금까지 유지시켜 온 그들의 자아일관성에 위협을 받게 되어 정체성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 시기이다. 즉 이 시기에 청소년들은 자기존재에 대한 의문과 생물학적 성적 성숙에 의한 본능과 자아, 초자아간의 갈등 그리고 사회적 역할, 능력 등에 대한 갈등이 심해지면서 정체성 위기, 혹은 정체성 확산, 부정적 정체성을 경험하면서 역할혼돈에 빠지기도 한다(이차선, 2000). 그래서 청소년들은 이 기간 동안 지금까지의 아동기적 사고방식을 중단하고, 결국 자신의 정체성을 반영할 것으로 믿어지는 이념들을 모색하고 채택할 절박한 필요가 있다(Lewis, 2003).

에릭슨(Erickson, E. H.)은 청소년들이 현재의 나는 누구이며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결정할 때 경험하는 혼란과 불안을 설명하기 위하여 정체성 위기(identity crisis)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자아정체성을 모색하고 확립하는 것이 청소년기의 가장 중요한 발달과업으로 보았다. 청소년기의 기본 과업은 아동기부터 그가 해온 여러 가지 동일시를 더욱 하나의 완전한 정체로 통합하는 것이다. 만일 그의 동일시와 역할 혹은 단편적인 자신에 대한 개념들을 전체적인 하나로 통합할 수가 없으면 그는 정체혼미를 맞게 된다.

이러한 청년기의 정체성 위기는 자신이 대한 연속성(continuity)과 동질성(sameness)의 확립, 상이한 관점과 시각에서 서로 달리 판단될 수 있는 자아의 여러 국면을 일관성 있는 하나의 자아체계로 통합(integration), 자신의 독특성(uniqueness)과 특수성(distinctiveness)의 확립의 목표가 확립될 때 달성되고 극복된다(송명자, 2006).

Marcia는 정체성 탐색이 이루어졌는가(exploration)와 주어진 과업에 관여하는가(commitment)의 여부에 근거하여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형성과정을 4가지 정체성 지위(identity status)로 설명하고 있다. 그는 과업에 관여하는 2가지 정체성 지위와 과업에 관여하지 않는 2가지 정체성 지위를 구분하였다. 정체성 성취(identity achieve)상태의 청소년들은 신중한 탐색과정에 기초하여 자기 방식으로 세워진 정체성이 규정지어진 방향으로 과업에 관여하는 것을 채택해왔다. 정체성 유실(identity foreclosure)상태의 청소년들은 정체성을 규정하는 역할과 가치들에는 관여했지만 과업에 관여하기

이전에 진지한 탐색과정에 몰입했던 적이 없다. 이들은 중요한 대상들(보통은 부모)과의 동일시에 기초하여 정체성을 취하여 왔다. 정체성 유예(identity moratorium)와 정체성 혼미(identity diffusion)상태의 청소년들은 정체성을 규정하는 역할들과 가치들에 관여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정체성 유예 상태의 청소년들은 자신에 적합한 잠재적인 직업역할들과 이념적 가치들을 탐색하거나 시험해보는 과정이 매우 많은 반면에 정체성 혼미 상태의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다(Kroger, 2000). 그는 대부분의 청소년들의 자아정체감이 사춘기 전후의 방향과 갈등을 내포하는 역할혼미로부터 부모에게 의존함으로써 자신의 방향과 갈등을 일시적으로 안정시키고자 하는 정체성유실, 모험적이고 도전적인 태도로서 자기를 탐색해가는 정체성유예, 그리고 자아의 통합과 연속성을 갖는 정체성 성취로 발달한다고 보았다(김형태, 1989).

그런데 이러한 위기가 제대로 극복되지 못하고 자아정체감을 확립하지 못하면 부정적인 특성이 형성되어 다음 발달단계에 장애요인이 되며 이 같은 상태가 심화되면 정신병리적 현상을 초래하여 청소년에 의해 야기되는 사회문제의 주된 원인이 되기도 한다(Lerner and Spanier, 1980; 이현, 1998에서 재인용). 역할혼미와 의사결정에서의 계속되는 실패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수치심, 자존감의 결여, 소외, 자율성 상실 등의 부적응 증상을 갖게 하거나 부정적인 정체감을 형성시켜 반사회적 집단, 불량집단, 반사회적 영웅들과 동일시하게 하며 범죄, 비행 등의 반사회적 행동을 발달시키게 하는 것으로 보았다(김성일·김남희, 2001).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은 이후에 성인기의 발달과 적응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의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밝히려는 꾸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에릭슨은 긍정적인 자아정체감 형성에 장애에 되는 조건으로서 개인적 요인으로서 유아기에 획득되는 개인의 기본신뢰감의 결핍, 자아통합의 효능성을, 상황적 요인으로서 생활경험의 동질성 내지 일관성, 장래 전망의 투명성, 이념적 체제의 일관성 여부, 역사적 변동, 자기개발을 위한 다양한 역할실험이 허용되는 사회구조와 풍토의 문제를 들었으며 이러한 상황적 조건이 마련되지 않은 사회구조는 잠재적으로 청소년들의 진정한 자아정체감 형성을 방해한다고 보았다(서봉연, 1986).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발달과 형성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서 인지적 성장(Boys and Chandelr, 1992; Shaffer, 2002/2005에서 재인용), 청소년기나 그 이전에 부모와의 동일시 정도, 부모의 양육태도, 소속된 사회의 동질성, 동일시 대상의 성공적인 삶

이나 부모의 자아정체감 상태, 가정, 학교 또래집단, 청년기 이전의 성격 혹은 다른 발달 상태(Waterman, 1982)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가정환경과 학교환경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에릭슨은 정체감 형성을 개인과 사회간의 상호조절과정으로 보았으며(Bergh and Erling, 2005) 많은 연구자들도 그의 상호역동적 관점(transactional approach)을 견지하고 있다(예, Adams and Marshall, 1996; Cote and Levine, 1988; Grotevant and Cooper, 1986). 즉 자아정체감의 발달과 형성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이루어 지는데, 부모의 피드백, 또래집단의 피드백, 학교교사 등의 피드백 과정을 통하여 정체감이 형성되어 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아정체감의 변화를 연령 및 학교별로 살펴본 연구들 중에서 서봉연(1975)은 한국과 독일 청소년들의 자아 정체감을 비교한 결과 12세에서 15세까지는 일시적으로 감퇴현상을 보이다가 다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자아정체감의 변화가 고등학교 시절부터 의미있게 변화함을 지적하였으며, 김형태(1989)는 고등학교 시기가 자아정체감 발달에 결정적 시기인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고등학생 집단이 대학생 집단보다 우울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신민섭·오경자, 1993; 정욱호, 1996)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자아정체감과 우울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요인들 중 핵심적인 요인들인 부모의 양육행동 및 친구 관계가 이들의 자아정체감 형성과 우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 자아정체감 형성의 심리적 기제를 밝히고, 청소년 우울을 예방하기 위한 상담적 개입방안 수립에 유용한 시사점을 주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양육행동과 자아정체감

가정환경과 자아정체감에 관한 연구추세를 보면, 정체감형성의 발달과정과 관련된 가정환경변인은 크게 물리적 환경 측면에서는 가족의 구조 및 사회경제적 지위 환경

이 주로 다루어지고, 심리적 환경으로는 부모와 과징환경이 많아 연구되고 있다(이차신, 2000).

부모 유무(Jordan, 1970, Oshaman and Manosevitz, 1976; 권순명, 1994에서 재인용), 사회경제적 지위(김유자, 1996; 신태수, 1986; 유명환, 1989; 전광주, 1987; 조원영, 1990) 등이 연구되어진 바 있지만 가정의 심리적 환경은 정체감 형성의 발달과정에서 가장 핵심변인으로 여겨진다.

심리적 환경 가운데 가족은 청소년의 발달에 가장 강력한 사회적 영향력을 미치는데(Perrino et al., 2000), 특히 부모는 자신의 자녀를 일생동안 돌봐왔기 때문에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전환할 때에도 많은 영향력을 유지한다(Sternberg, 2001). 자신의 부모와 관계가 좋은 청소년들은 보다 공고하고 통합된 자아정체감을 발달시키는 경향이 있지만 가족관계가 소원하고 갈등적인 경우에는 보다 단편적인 자아정체감을 발달시키는 경향이 있다(Schwartz et al., 2005).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다(Dyk, 1990; 이화림, 2001에서 재인용).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정체성과의 관계를 다룬 연구들은 비교적 일관되게 부모의 수용적, 자율적 양육태도가 자녀의 자아정체감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권순명, 1993; 김선애·연진영, 1989; 박아청·이승국, 2000; 송설희, 1994; 이강이, 2002). 그런데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정체성간의 관계를 다룬 기존의 연구들은 부와 모를 구분하지 않고 부모의 양육태도를 측정하여 자아정체감과 관계를 확인하였다. 그러나 박순희(2003)는 아버지의 경우에는 수용적 양육태도와 자율적 양육태도가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어머니의 경우에는 수용적 양육태도와 성취지향적 양육태도가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승국(1995)은 아버지의 수용적 양육태도와 어머니의 자율적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가장 긍정적인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결과들은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부와 모의 양육태도가 차별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아버지와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부적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다.

2. 친구관계와 자아정체감

오늘날 청소년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기 때문에 학교환경은 청소년들이 사회체계에서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고 발달시키는 데 중요한 곳이다. 특히 청소년들은 교사와 또래집단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대인관계를 확장하고 자신의 역할과 정체감을 모색한다.

학교환경 중에서 또래집단과의 관계가 가장 핵심요인임을 시사하는 연구들이 있다. 루터(Rutter, 1985; 이차선, 2000에서 재인용)는 교사와의 상호작용과 교사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자아정체감과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박아청과 이승국(2000)은 교사와의 관계는 직접적으로 자아정체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친구의 지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친구와의 관계는 직접적으로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친구의 지지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강미애(1991)와 김형태(1989)는 자아정체감과 교우관계가 유의한 상관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김형태(1989)는 고등학생 집단이 중학생과 대학생 집단보다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음을 지적하며 중고교 시절 교우관계를 통하여 개인의 내적 안정성과 소속감을 얻는다고 보고하였다. 박미석과 조혜진(2002)은 친구친밀도가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을 유의하게 예측함을 확인하고, 친구관계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문제가 있을 때 낮은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게 됨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친구관계가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다.

3. 자아정체감과 우울

우울은 청소년기의 심리적 부적응 가운데 가장 보편적인 것으로서(신민섭·오경자, 1993) 에릭슨은 장기적으로 명확한 정체성을 형성하지 못한 개인들은 혼미상태에 빠져 목적없이 떠돌며 우울해지고 자기 확신이 부족하게 된다고 보았다.

청소년기 우울은 이들의 경험하는 발달과정상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 특히 청소년들은 자아정체감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주위의 환경이나 자극에 의해 감정 변화가 쉽게 일어나며 각종 스트레스나 부담감을 조정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과격하게

표현하거나 위축되어 우울감을 경험하기도 한다(정옥분, 2002).

앤델슨(Andelson, 1984; 이정신, 2006에서 재인용)은 청소년기 우울이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전형적인 성인의 양상과 비슷하나 우울증상은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첫째, 청소년들은 발달단계상의 특징으로 급변하는 생리적 변화에 적응하고 부모와 독립하는 것을 익히며 또래친구 관계를 형성한다. 그 결과 그들 자신이나 동료가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지극히 곤란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성인을 향해 무희망, 무기력감, 자기존재 무시 등 우울한 기분을 나타내거나 의외의 다른 행동을 보이기도 하는 것이다. 둘째, 아동들처럼 청소년 전기에는 사고하기 보다는 행동화하는 경향이 발달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청소년 초기에는 성인의 우울증과 달리 내성적인 집착을 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행동으로 드러나는 상실과 실망으로 그들의 우울을 나타내는 것이다. 셋째, 학습된 무력감이다. 학습된 무력감은 자신이 통제할 길이 전혀 없는 스트레스를 오랜 기간 동안 받거나 계속되는 실패의 경험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자신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을 낳는다. 이러한 자세를 갖는 청소년들은 때때로 일탈적이고 반사회적인 집단에 참여하여 비행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자아정체성과 우울과의 관련을 규명한 직접적인 연구는 없으나 에릭슨의 정체성이론과 정체감 혼미와 유예 상태의 청소년들이 성취와 조기유실 상태의 청소년들보다 우울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정옥호(1996)의 연구결과는 자아정체감이 우울과 관련됨을 시사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이 청소년의 우울에 부적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다.

4. 양육행동, 친구관계, 우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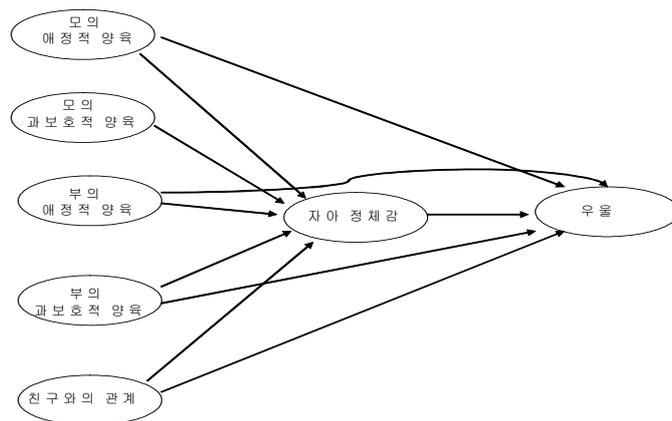
부모의 부정적 혹은 부적절한 양육태도는 자녀의 정신병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부모의 적절한 관심과 돌봄의 결여는 아동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고(Harris et al., 1986), 부모의 자율성을 억제하는 심리적 통제감과 자녀의 우울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arber et al., 1994). 보울비(Bowlby, J.)는 양육자가 아이에게 얼마나 안전감과 신뢰감을 주느냐, 또 아이가 고통을 받을 때 얼마나 안락하게 해주

느냐에 달려있는데 건강한 유대관계를 갖게 해주는 조건이 결핍되면 나중에 커서 적응상의 문제를 갖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애착유대가 손상되면 우울증과 기타의 정신병리적 반응이 나타난다고 보았다(Marsh and Barkley, 2001). 따라서 부모의 부적절한 양육행동은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불안정 애착을 형성하도록 해서 성장해서도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부적응을 일으킴을 시사한다.

청소년기는 부모로부터 분리 독립하기 시작하면서 사회적 관계에서 또래집단의 중요성이 현저히 증가되는 시기이다. 빔 등(Beem et al., 2002)은 또래로부터 인정을 적게 받는 청소년들이 더 높은 우울증상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필드 등(Field et al., 2001)은 적절한 수준의 또래관계가 없고 친구 수가 적으며 인기가 없는 청소년들이 우울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것을 발견하였으며, 가네프스키와 디엑스트라(Garnefski and Diekstra, 1996)는 또래에 대한 부정적 지각이 청소년의 정서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이정선(2006)은 친구관계가 청소년들의 우울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청소년의 친구관계가 우울에 부적 영향을 미침을 시사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아버지와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우울에 부적 영향을 미치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우울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친구관계가 청소년의 우울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다.

지금까지 제시한 가정들에 의거한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이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1] 부모의 양육태도, 교사 및 친구와의 관계, 자아정체감, 우울간의 가설적 모형

Ⅲ. 방 법

1. 조사대상 및 절차

본 연구의 대상자는 K도의 M시, C 및 J시에 소재한 인문계 고등학교 5개교 재학생으로서, 각 학교별로 학년별 1학급씩을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표집에 선정된 학교를 방문하여 담임교사들에게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후 협조를 얻어 실시하였으며, 수업시간에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사용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조사 결과 500명의 설문지가 회수되었으며, 결측치가 많거나 성실하게 응답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설문지 8부를 제외한 총 492명을 분석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분석대상자로 선정된 492명의 자료 중 다변량 정규분포를 위협하는 극단적인 응답치를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 V9를 이용한 분석을 통하여 10명을 제외시키고 나서 482명의 자료를 최종적으로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 중 남학생이 239명(50.0%), 여학생이 239명(50.0)이었다.

2. 조사도구

1) 부모의 양육행동

파커 등(Parker et al., 1979)의 PBI(Parent Bonding Instrument)를 송지영(1992)이 번안한 한국판 부모-자녀 결합형태 검사지를 사용하였다. 원래는 성인을 대상으로 회고적 자기보고를 통하여 부모-자녀 관계를 평가할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척도인데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지각하고 있는 현재의 부모-자녀 관계를 평가할 수 있도록 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핵심적인 부모 양육차원인 부모의 애정적 양육과 과보호적 양육에 대한 자기보고식 측정도구로서 16세까지의 기억을 토대로 각각 25문항의 내용에 대하여 아버지와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여 각각 ‘전혀 안 그랬다’(1점)에서 ‘아주 그랬다’(4점)까지의 Likert식 4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애정적 양육행동이나 과보호적 양육행동이 많았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모의 애정적 양육 .85, 모의 과보호적 양육 .80, 부의 애정

적 양육 .90, 부의 과보호적 양육 .80이었다.

2) 친구관계

김형태(1989)가 개발한 교우관계 척도 20문항 중 ‘친구유무와 신뢰도 요인’ 3문항, ‘교제의 지속성 요인’ 1문항, 이효성(2001)이 개발한 학생간의 관계 척도 3문항 중 2문항을 선정하여 총 6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들에 대해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Likert식 5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친구와의 관계가 좋은 것으로 지각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72이었다.

3) 자아정체감

이승국(1999)이 박아청(1996)의 ‘한국형 자아정체 검사’의 8개 하위영역 중 ‘정체감 혼미’와 ‘정체감 유예’ 등의 두 영역을 제외한 주체성, 자기수용성, 미래확신성, 목표 지향성, 주도성, 친밀성의 6개의 하위영역으로 재구성한 48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들에 대해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Likert식 5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정체감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연구에서 산출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5이었다.

4) 우울

청소년의 우울을 측정하기 위하여 노 등(Noh et al., 1991)이 제작한 CES-K(Revised Korean Version of the Center for Epidemiologic-depression Scale) 26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들에 대해서 ‘거의 없었다’(1점)에서 ‘항상 있었다’(4점)까지의 Likert식 4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연구에서 산출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0이었다.

3. 분석

청소년 부모의 양육행동, 친구관계, 자아정체감, 우울간의 가설적 관계 모형을 설정하여 LISREL8(Joreskog and Sorobom, 1993)을 통하여 공변량 구조분석을 하였다. 공변량 모형들의 부합도를 측정하는 단일지수에 대한 견해가 학자마다 다르고, χ^2 값의 부합도가 표본의 크기에 심하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료의 부합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χ^2/df , NNFI(Non-Normed-Fit Index, Marsh et al., 1988), CFI(Comparative-Fit-Index, Bentler, 1990),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Steiger, 1990) 등 다중 통계치들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합도 수치들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은 없지만 수치들이 .90을 초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Maruyama, 1998) 일반적인 기준과 χ^2/df 는 3이하, CFI는 .95이상, RMSEA 수치는 .08이하까지 수용가능하다는(Kline, 1998) 기준에서 모형의 전반적인 부합도를 검증하였다.

또한 자료를 분석하기 전에 다변량 극단치를 SAS의 R-student, Cook's Distance, Dffits, Dfbetas 통계량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그 결과 10명의 자료를 제외시켰다. 공변량 구조모형의 자료에서 편포도(skewness) > | 3.0 |, 첨도(kurtosis) > | 10.0 | 인 경우 정규분포를 심하게 벗어난 것으로 여겨진다(Kline, 1998). 그런데 일변량 정규분포의 가정을 검증한 결과 본 연구의 모든 척도들이 첨도와 편포도가 1을 넘지 않았으며, 우울을 준거변인으로 한 다변량 정규분포를 검증한 결과 Sapiro Wilk = .98 ($p < .001$)로서 다변량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하지는 않지만, 편포도 = .44, 첨도 = .96로서 다변량 정규분포를 거의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여겨져서 미지수 추정에 최대가능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결측치가 하나라도 있으면 분석에서 제외하는 listwise(casewise) 제거법을 이용하였으며, 측정변인들간의 척도가 달라서 입력자료로서 상관행렬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모형은 부모의 양육행동과 친구관계가 자아정체감을 매개로 삼아서 우울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직접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한 모형이다. 경합모형으로서 부모의 양육행동과 친구관계가 직접적으로만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직접모형, 본 연구의 제안모형에서 부모의 양육행동과 친구관계가 직접적으로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삭제하고 부모의 양육행동과 친구관계가 자아정체감을 통해서만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완전매개모형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가정하는 직접모형과 완전매개모형 외에 2가지 경합모형을 더 설정하였다. 부분매개모형1은 부모의 양육행동은 직접적으로 우울에 영향을 미치지만 친구관계는 자아정체감을 통해서만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모형으로서, 이 모형은 청소년들의 부적응적 정서에 학교환경(또래관계)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가정환경(부모의 양육행동)만이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한 모형이다. 부분매개모형2는 친구관계는 우울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부모의 양육행동은 자아정체감을 통해서만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모형으로서 가정환경(부모의 양육행동)은 청소년들의 부적응적 정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학교환경(또래관계)만이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한 모형이다. 부모의 영향력은 줄어들지만 또래관계의 영향력은 급격히 커지는 청소년기의 특성상 부분매개모형1보다는 부분매개모형2가 더 가능성이 높은 모형으로 추정된다.

모의 애정적 양육행동, 모의 과보호적 양육행동, 부의 애정적 양육행동, 부의 과보호적 양육행동, 친구관계, 자아정체성, 우울은 각 측정치들을 요인부하량이 가장 높은 문항과 가장 낮은 문항을 합하고 그 다음 높은 문항과 낮은 문항을 합하여 최종적으로 각 변수당 요인부하량이 비슷한 2개의 측정변수들을 구성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Bruch et al., 1998; Russel et al., 1998). 측정변수로서 개별적 문항들을 사용하게 되면 공변량 구조분석에 주로 사용되는 최대가능법의 기본가정인 다변량 정규분포 가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Russel et al., 1998), 표집이 모수추정수의 5배 이상이 되어야만 최대가능법에서 안정된 추정치를 구할 수 있어서(Bentler and Chou, 1988) 최종적으로 각 척도별로 문항들을 요인분석하여 요인부하량이 비슷하도록 반분하였다. 그리고 반분한 문항들을 합산해서 학위척도 문항들을 구성하여 결과적으로 각 척도별로 2개씩의 하위척도들을 생성하였다.

공변량 구조분석에서는 단일모형을 검증하는 방식, 경합모형을 설정하여 그 중 한 모형을 선택하는 방식, 가설적 모형을 기본으로 하여 모형을 수정해나가는 방식 (Joreskog and Sorbom, 1993)이 있는데, 모형을 수정하는 방식은 자료주도적 과정으로서 자료 표집의 특성에서 오는 우연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정된 모형을 다른 표집이나 전집에 일반화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져서(Silvia and MacCallum, 1988; Maruyama, 1998), 본 연구에서는 모형수정을 통한 모형찾기는 시도하지 않고 경합모형을 설정하여 그 중 한 모형을 선택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IV. 결 과

1. 측정변수들간의 관계

측정변수들 간의 상관분석 결과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청소년의 자아정체성 변수들은 부와 모의 애정적 양육태도 및 친구관계 변수들과는 유의한 정적인 상관이, 과보호적 양육태도 변수들과는 부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들은 부모에게 애정적으로 양육을 받아왔다고 지각할수록, 친구들과의 관계가 좋다고 지각할수록 자아 정체감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부모에게 과보호적 양육을 받아왔다고 지각할수록 자아정체감 수준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2. 구조모형 검증

<표 1> 측정변수들의 평균, 표준편차, 상관계수 (listwise deletion, $N = 472$)

측정변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 모 애정1	—													
2. 모 애정2	.71	—												
3. 모 과보호1	-.26	-.37	—											
4. 모 과보호2	-.39	-.48	.65	—										
5. 부 애정1	.35	.34	-.17	-.20	—									
6. 부 애정2	.24	.38	-.21	-.22	.74	—								
7. 부 과보호1	-.16	-.19	.45	.34	-.25	-.27	—							
8. 부 과보호2	-.19	-.23	.33	.43	-.41	-.41	.65	—						
9. 친구관계1	.19	.18	-.19	-.16	.20	.17	-.15	-.18	—					
10. 친구관계2	.23	.24	-.27	-.25	.31	.24	-.22	-.26	.55	—				
11. 정체감1	.24	.34	-.31	-.29	.19	.24	-.19	-.22	.45	.41	—			
12. 정체감2	.27	.36	-.33	-.32	.23	.29	-.20	-.26	.46	.48	.77	—		
13. 우울1	-.19	-.20	.18	.22	-.16	-.20	.11	.19	-.46	-.33	-.46	-.54	—	
14. 우울2	-.15	-.18	.21	.22	-.14	-.18	.13	.21	-.40	-.33	-.49	-.57	.78	—
<i>M</i>	19.83	18.38	13.78	12.21	18.28	16.64	13.26	11.74	10.93	11.95	9.57	9.98	21.91	28.33
<i>SD</i>	2.73	2.91	3.00	2.83	3.35	3.76	3.22	3.20	2.48	1.96	1.90	1.89	6.76	6.17

주. 모든 변인들의 상관은 $p < .01$.임.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적 구조모형(부모의 양육행동과 친구관계가 직접적으로 우울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자아정체감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한 모형)에 대한 부합도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제안모형은 비교적 부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chi^2(56, N = 472) = 168.38, p < .001$; NNFI = .942; CFI = .964; RMSEA = .065. 그런데 변인들간의 관계에 있어서 연구자가 설정한 제안모형 외에 대안적인 설명을 해주는 다른 경합모형의 설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연구자의 제안모형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른 대안모형과의 적합성 비교가 필요하다. 즉 더 높은 적합성을 보이는 다른 대안모형이 없다면 연구자가 설정한 제안모형을 수용할 수 있다(Anderson and Gerbing, 1988).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자아정체감의 완전부분매개모형(부모의 양육행동과 친구관계가 직접적으로 우울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자아정체감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한 모형)을 제안하였으며, 이에 대한 경합모형으로서 자아정체감의 비매개모형(직접모형 즉 부모의 양육행동과 친구관계가 자아정체감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직접적으로만 영향만을 미친다는 모형), 자아정체감의 완전매개모형(부모의 양육행동과 친구와의 관계가 자아정체감을 통해서만 우울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모형), 자아정체감의 부분매개모형1(친구와의 관계는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자아정체감을 통해서만 간접적으로만 영향을 미치지만, 부모의 양육행동은 우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자아정체감을 통하여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친다는 모형), 자아정체감의 부분매개모형2(부모의 양육행동은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자아정체감을 통해서만 간접적으로만 영향을 미치지만, 친구와의 관계는 우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자아정체감을 통하여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친다는 모형)을 설정하여 비교한 결과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2>에 제시된 부합도 지수들을 살펴보면 직접모형을 제외하고는 모든 모형들이 비교적 부합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제안모형이 직접모형에 비해서 부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chi^2(5, N = 472) = 169.05, p < .001$. 그러나 제안모형은 부분매개모형1($\chi^2(4, N = 472) = 6.18, p > .05$), 부분매개모형2($\chi^2(1, N = 472) = 2.16, p > .05$), 완전매개모형($\chi^2(5, N = 472) = 9.13, p > .05$)에 비해서 부합도가 높지 않아서 더 간략한 모형인 경합모형들이 더 좋은 모형임을 알 수 있다.

부분매개모형1 비해서 부분매개모형2가 부합도와 간략성의 측면에서 더 좋은 모형

이므로 부분매개모형2를 선정하였고, 다시 부분매개모형2와 완전매개모형을 비교한 결과 부분매개모형2가 완전매개모형에 비해서 적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chi^2(1, N = 472) = 6.97, p < .01$.

따라서 경합모형인 부분매개모형2(부모의 양육행동은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자아정체성을 통해서만 간접적으로만 영향을 미치지만, 친구와의 관계는 우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자아정체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친다는 모형)가 가장 좋은 모형임을 알 수 있어서 최종 모형으로 채택하였다.

<표 2> 설정모형과 경합모형의 부합도 (listwise deletion, $N = 4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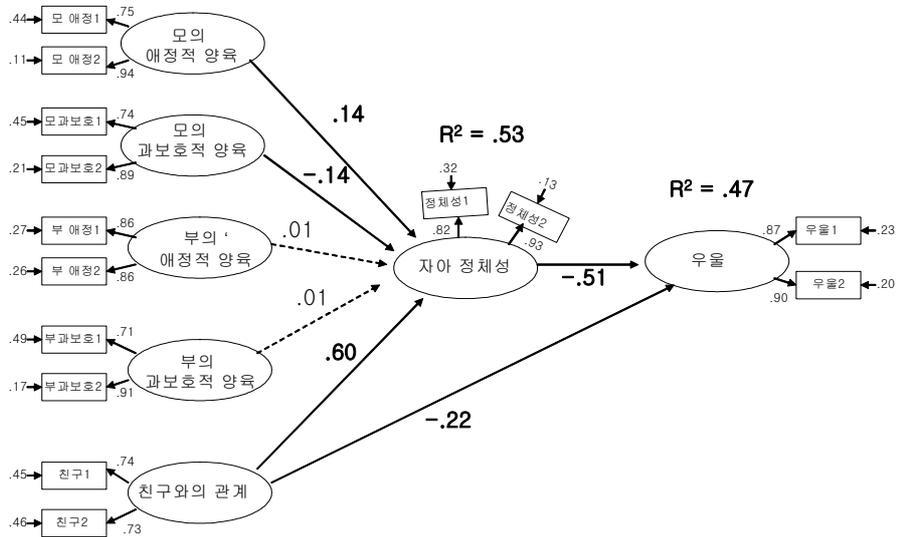
모형	χ^2	df	p	χ^2/df	NNFI	CFI	RMSEA
제안모형 (부모의 양육태도, 친구와의 관계 → 자아정체성 → 우울; 부모의 양육태도, 친구와의 관계 → 우울)	168.38	56	<.001	3.01	.942	.964	.065
직접모형 (부모의 양육태도, 친구와의 관계, 자아정체성 → 우울)	337.43	61	<.001	5.53	.845	.896	.098
완전매개모형 (부모의 양육태도, 친구와의 관계 → 자아정체성 → 우울)	177.51	61	<.001	2.91	.945	.963	.064
부분매개모형1 (부모의 양육태도 → 자아정체성 → 우울, 부모의 양육태도 → 우울; 친구와의 관계 → 자아정체성 → 우울)	174.56	57	<.001	3.06	.940	.962	.066
부분매개모형2 (부모의 양육태도 → 자아정체성 → 우울; 친구와의 관계 → 자아정체성 → 우울, 친구와의 관계 → 우울)	170.54	60	<.001	2.84	.947	.965	.063

주. NNFI = non-normed fit index; CFI = comparative fit index; RMSEA = root-mean-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 $p < .05$. ** $p < .001$. *** $p < .001$.

최종적으로 채택된 모형(부분매개모형1)의 경로별 표준화된 회귀계수가 [그림 2]에 제시되어 있다.

모의 애정적 양육행동은 청소년의 자아정체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14, t = 2.25, p < .05$, 모의 과보호적 양육행동은 청소년의 자아정체성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14, t = 1.96, p < .05$.

친구와의 관계는 청소년의 자아정체성에 정적인 영향을, $\beta = .60, t = 8.71, p < .01$, 우울에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22, t = -2.90, p < .01$, 또한 청소년의 자아정체성은 우울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51, t = -7.02, p < .01$.



[그림 2] 부모의 양육태도, 교사 및 친구와의 관계, 자아정체성, 우울간의 표준화된 구조모형

그러나 부의 애정적 양육행동과 과보호적 양육행동은 자아정체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 $\beta = .01, t = .11, p > .05$; $\beta = .01, t = .18, p > .05$.

[그림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채택된 구조모형이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변량의 53%를 우울변량의 47%를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의 자아정체감과 우울이 본 연구의 최종모형에 의해서 잘 예측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3. 양육행동, 친구관계, 자아정체감이 우울에 미치는 효과

<표 3> 부모의 양육행동, 친구관계, 자아정체성이 청소년의 우울에 미치는 표준화된 간접효과와 총효과

변인	간접효과	총효과
모의 애정적 양육	-.073*	-.073*
과보호적 양육	.072*	.072*
부의 애정적 양육	-.003	-.003
과보호적 양육	-.006	-.006
교우관계	-.301**	-.525**

* $p < .05$. ** $p < .01$.

본 연구의 핵심적 가설은 부모의 양육행동, 친구관계가 청소년 자아정체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와 부모의 양육행동, 친구관계과 우울간의 관계에서 자아정체감이 매개효과가 있는가에 있다.

부모의 양육행동과 친구관계가 우울에 미치는 간접효과와 총효과가 <표 3>에 제시되어 있으며, 각 변인들이 우울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그림 2]에 제시되어 있다. 각 변인의 직접효과는 총효과 중에서 모형에서 다른 변인들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자적인 부분이며 각 변인의 간접효과는 총효과 중에서 다른 변인들에 의해서 매개되는 부분이다.

최종적으로 채택된 모형내에서 모의 애정적 양육행동은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을 올려주는 방식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우울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모의 과보호적 양육행동은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을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우울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친구관계는 그들의 자아정체감을 올려주는 방식을 통하여 우울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우울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최종모형에서 모의 애정적인 양육행동은 자아정체감을 통하여 우울을 감소시키지만 과보호적 양육행동은 자아정체감을 통하여 우울을 증가시켜서 전체적으로는 효과가 상쇄되어 우울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친구와의 관계는 직간접적으로 우울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행동, 친구관계가 청소년 자아정체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와 부모의 양육행동, 친구관계과 우울간의 관계에서 자아정체감이 매개효과가 있는가를 공변량구조모형을 통하여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확인된 주요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의 애정적 양육행동은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발달을 촉진시키고 과보호적 양육행동은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와 자율적 양육태도가 자아정체감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기존의 연구결과들(김선애·연진영, 1989; 이강미, 2002; 권순명, 1993; 송설희, 1994; 박아청·이승국, 2000)과 일치한다.

Schaefer(1959; 박순희, 2003에서 재인용)는 정상적인 부모의 양육태도를 장기적으로 연구하여 가설적 원형모형을 제시하였다. 그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애정(수용)-적의(거부) 축과 자율(자유)-통제(소유)의 축으로 요약한 바 있다. 애정-자율적 태도는 자녀에게 애정을 갖고 자녀의 행동에 자율성을 인정하는 양육태도로서, 이러한 태도를 지닌 부모 밑에서 자란 아동은 능동적, 외향적이고 독립적이며 사회적응을 자신있게 하고 사교적이고 창의적이며 자신이나 타인에 대해 적대감을 가지지 않는다. 반면에 애정적-통제적 태도는 애정을 주면서도 자녀의 행동에 제약을 많이 주는 태도이다. 애정적-자율적 가정에서 자란 유아보다 더 의존적이고 사교성, 창의성이 적은 편이며 상상적인 적대감을 품는다고 한다. 그런데 부모의 과보호적 양육행동은 Schaefer의 양육태도 원형모형에서 자녀에게 애정은 조금 주지만 주로 통제하는 양육태도의 영역에 위치하며 청소년 자녀의 자립, 독립, 부모로부터의 분리를 허용하지 않아서 청소년기 자녀의 정체감 형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 결과는 모의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정체감 발달과 형성에 중요하게 작용함을 보여준다. 특히 애정적 양육행동은 자아정체감의 발달과 형성에 촉진적 작용을, 과보호적 양육행동은 자아정체감의 발달과 형성을 저해하는 작용을 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함으로써 향후 정체성 위기를 경험하는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인상담을 실시할 때에는 모의 양육행동에 초점을 맞추어 가정의 심리적 역동을 탐색할 필요가 있으며, 고등학교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에는 모의 애정적 양육행동을 촉진하고 과보호적 양육행동을 억제하는 전략을 염두에 두어야 함을 시사한다.

둘째, 부의 경우에는 양육행동이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과는 다른 예상 밖의 결과이지만 에릭슨의 이론에 의해 설명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즉 에릭슨의 발달단계이론에서 자아정체감은 청년기의 발달과정이지만, 이것은 청년기에 시작되거나 끝나는 과업이 아니라 유아기의 자아인식에서부

터 시작되어 노년기에 자아가 통합될 때 까지 계속되는 인생주기 전체의 과업인 것이다. 즉 에릭슨의 설명에 따르면, 자아정체감 발달의 원천적 바탕은 유아기에 형성되는 기본 신뢰감으로서, 이는 유아기의 부모-자녀 관계, 특히 모-자녀 관계에서 얻어지는 경험들의 일관성 내지는 동질성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서봉연, 1983). 그러므로 자아정체감의 발달은 이미 유아기에서 시작되어 외현적인 정체감 위기는 청소년기에 나타난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모의 양육행동은 청소년 자녀의 자아정체감의 발달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부의 양육행동은 청소년 자녀의 자아정체감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은 청소년기의 자아정체감의 뿌리가 유아기 애착대상과의 관계에 있으며 애착대상이 주로 부모라는 모라는 점을 고려하면 설명되어 질 수 있다. 그러나 이 결과는 후속연구를 통하여 검증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셋째, 청소년들의 친구와의 관계가 이들의 자아정체감 발달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또래집단과 자아정체감의 관련성을 확인한 기존의 연구결과들(강미애, 1991; 김형태, 1989; 박미석·조혜진, 2002; 박아청·이승국, 2000)과 일치한다.

청소년기의 애착행동은 부모뿐만 아니라 친구에게로 확대된다. 청소년 시기는 부모로부터의 분리와 독립이 시작되며 사회적 관계에서 또래집단이 중요성이 현저히 증가되는 시기로서 주로 부모보다는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과 상호작용이 많아지는 시기이다. 특히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만 보내는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또래의 중요성과 영향력이 매우 클 것으로 여겨진다. 청소년들이 친구관계를 잘 맺으면 자아정체감 발달을 촉진하지만 의사소통기술이나 사회적 기술이 부족하여 친구관계를 잘 맺지 못할 때 자아정체감 발달을 저해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고등학생들의 자아정체감 형성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여 인간관계훈련, 의사소통기술훈련 등의 대인관계향상에 초점을 맞춘 집단상담적 개입이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넷째, 청소년들의 친구와의 관계는 직접적으로 우울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자아정체감 발달의 촉진을 통하여 간접적으로도 우울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친구관계와 우울간의 관련성을 확인한 연구결과들(이정선, 2006; Beem et al., 2002; Field et al., 2001)과 일치한다.

이 결과는 청소년기의 우울은 청소년기가 부모로부터 분리 개별화를 이루고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발달과업과 관련됨을 보여준 것으로 여겨진다. 즉 청소년들이 자아정

체감 형성에 문제가 있을 때 부적응적 정서인 우울을 경험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본 연구모형내에서 모의 애정적 양육행동은 우울을 감소시키고(-.073), 모의 과보호적 양육행동이 우울을 증가시켜서(.073) 결과적으로 우울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친구관계는 직접적으로 우울을 감소시키고(-.224)와 자아정체감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우울을 감소시켜서(-.301) 결과적으로 우울을 감소시키는(-.525) 효과가 가장 큰 강력한 우울 억제요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서적 부적응 증상을 보이는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사례개념화시에 우선적으로 우울증상의 원인으로 친구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내담자 청소년의 우울한 정서를 직접 조절하는 상담적 개입전략을 통한 개입과 더불어 내담자 청소년의 대인관계 관련 기술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부적응적 정서인 우울을 감소하는 것이 효과적인 개입전략임을 시사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모의 애정적 양육행동과 친구관계는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의 발달과 형성을 촉진시키지만 모의 과보호적 양육행동은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의 발달을 저해하는 작용을 하며, 이들 요인들이 자아정체감의 형성에 작용하는 방식을 통하여 직간접적으로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의 발달과 형성에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친구관계가 핵심적인 가정과 학교의 심리사회적 환경 요인들을 밝혔고, 청소년 우울에 대한 개입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효과적인지를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향후 연구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결과는 고등학생들만을 조사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다른 연령대에 까지 일반화시키기 위해서는 중학생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반복연구를 통하여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정체감 형성에서의 연령의 효과에 대한 연구들은 대체적으로 연령이 증가하면서 역할혼미 상태의 지위에 있는 청소년들의 숫자는 감소하고 정체감 성취의 지위에 있는 청소년들의 숫자는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Waterman, 1985, 1999; Lewis, 2003에서 재인용). 따라서 중학생들은 역할혼미 상태의 지위에 있을 가능성이 많고 대학교 3-4학년 학생들은 정체감 성취의 지위에 있을 가능성이 많아서 이들 연령대 까지 본 연구결과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횡단적 연구이므로 이 자료를 통하여 매개모형이 가정하는 인과관

계를 추론하는 것이 매우 제한적일 수 밖에 없어서(Cole and Maxwell, 2003), 부모의 양육행동, 친구관계와 우울간의 관계에서 자아정체감의 매개효과를 명확히 결론짓기 어렵다. 따라서 향후 종단적 자료를 통하여 재검증되어야 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행동만을 조사하여 그 관련성을 규명하였다. 그러나 부모의 양육행동에 대해서 성인부모가 자신이 지각하는 것과 자녀가 지각한 것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녀와 부모를 함께 조사하여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강미애(1991). 농어촌 지역 여고생의 자아정체감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순명(1994). 지각된 양육경험과 자아정체감 및 통제귀인간의 관계분석. *교육발전논총*, 제15권, 1호, pp. 45-79.
- 김선애·연진영(1989). 대학생의 자아정체감 형성과 관련변인. *아동학회지*, 제10권, 제2호, pp. 45-60.
- 김성일·김남희(2001).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의사소통 유형과 자아정체감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제2권, 제1호, pp. 75-89.
- 김형태(1989).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발달 및 측정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유자(1996). 아동이 지각한 가정환경에 따른 정체감 유형과 창의성과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미석·조혜진(2002). 청소년의 인터넷 활용이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생활과학연구지*, 제17호, pp. 67-88.
- 박순희(2003). 여자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아정체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아청(1996). 한국형 자아정체감 검사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제15권, 제1호, pp. 140-162.
- 박아청·이승국(2000). 청소년의 성과 연령에 따라 자아정체감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변인들의 구조분석. *교육학논총*, 제20권, 제2호, pp. 256-282.
- 서봉연(1975). 자아정체감 형성에 관한 일 연구.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서봉연(1983).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확립. *한국아동학회 추계심포지움 발표자료*.
- 송명자(2006). *발달심리학*. 서울: 학지사.
- 송설희(1994). 가족유형의 지각된 부모의 수용-거부가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송지영(1992). 한국판 부모-자녀 결합 형태 검사(Parenting Bond Instrument):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한국정신의학*, 제31권, 제5호, pp. 979-992.
- 신민섭·오경자(1993). 청소년기의 자아정체감 혼란과 부적응 행동. *대학생활연구*, 제11호,

- pp. 71-84. 한양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신태수(1986). 성인기의 자아정체감과 개인적 특성간의 상관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유명환(1989). 가정환경이 자아정체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강이(2002). 가정의 소득수준과 지각된 부모의 양육행동 및 학령기 아동의 자아정체감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제40권, 10호, pp. 67-76.
- 이승국(1995).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청소년의 지각과 자아정체감과의 관계.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승국(1999).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변인들의 구조분석. 계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정선(2006). 청소년의 개인 및 가족 요인과 우울간 관련성.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차선(2000). 가정환경, 학교환경, 자아존중감이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 제주도 청소년을 중심으로. 백록논총, 제2권, pp.109-138..
- 이현(1998). 자녀가 지각한 아버지 양육행동과 청소년 자녀의 자아정체감 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화립(2001). 부모양육태도와 중·고등학생의 자아정체감의 관계.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광주(1987). 자기일관성과 생활변동이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옥분(2002). 청년발달의 이해. 서울:학지사.
- 정옥호(1996).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지위와 심리적 부적응과의 관계. 신일전문대학논문집, 제10권, 제1호, pp. 300-318.
- 조원영(1990). 가정환경이 학업성취와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Adams, G. R., and Marshall, S. K.,(1996). A developmental social psychology of identity: Understanding the person-in-context. *Journal of Adolescence*, Vol. 19, pp.429-442.
- Anderson, J. C., and Gerbing, D. W.(1988). Structural equations modeling in

-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Vol. 103, pp. 411-423.
- Barber, B. K., Olsen, J. E., and Shagle, S. C.(1994). Association between parental psychological and behavioral control and youth internalized and externalized behaviors. *Child Development*, Vol. 65, pp. 1120-1136.
- Beem, M. R., Gil-Rivas, V., Greenberger, E., and Chen, C. (2002). Adolescent problem behavior and depressed mood: Risk and protection within and across social contex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 31, pp. 343-357.
- Bentler, P. M.(1990). Comparative fit indices in structural models. *Psychological Bulletin*, Vol. 107, pp. 238-246.
- Bentler, P. M., and Chou, C.(1998). Practical issues in structural modeling. In J. S. Long (Ed.), *Common problems/proper solutions: Avoiding error in quantitative research* (pp. 161-192). Newbury Park, CA: Sage.
- Bergh, S., and Erling, A.(2005). Adolescent identity formation: A swedish study of identity status using the EOM-EIS-II. *Adolescence*, Vol. 40, pp. 378-396.
- Bruch, M. A., Berko, E. H., and Haase, R. F.(1998). Shyness, masculine ideology, physical attractiveness, and emotional inexpressiveness: Testing a mediational model of men's interpersonal competenc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 45, pp. 84-97.
- Cole, D. A., and Maxwell, S. E.(2003). Testing mediational models with longitudinal data questions and tips in the us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Vol. 112, pp. 558-577.
- Cote, J. E., and Levine, C.(1988). A critical examination of the ego identity status paradigm. *Developmental Review*, Vol. 8, pp. 147-184.
- Field, T., Diego, M., and Sanders, C.(2001). Adolescent depression and risk factors. *Adolescence*, Vol. 36, pp. 491-498.
- Garnefski, N., and Diekstra, R.(1996). Perceived social support from family, school, and peer relationship with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 Psychiatry*, Vol. 35, pp. 1657-1664.
- Grotevant, H. D., and Cooper, C. R.(1986). Individuation in family relationships. *Human development*, Vol. 29. pp. 82-100.
- Harris, T., Brown, G. W., and Bifulco, A.(1986). Loss of parent in childhood and adult psychiatric disorder: The role of lack of adequate parental care. *Psychological Medicine*, Vol, 16, pp. 641-659.
- Jöreskog, K. G., and Sörbom, D.(1993). *LISREL 8 user's reference guide*. Chicago: Scientific Software.
- Kline, R. B.(1998).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New York: Guilford Press.
- Kroger, J.(2000). Ego identity status research in the new millennium.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Vol. 24, pp. 145-148.
- Lewis, H. L.(2003). Differences in ego identity among college students across age, ethnicity, and gender. *An international Journal of Theory and Research*, Vol.,3, pp. 159-189.
- Marsh, H. W., Balla, J. R., and McDonald, R. P.(1988). Goodness-of-fit indexes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The effect of sample size. *Psychological Bulletin*, Vol. 103, pp. 391-411.
- Maruyama, G. M.(1998). *Basic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
- Mash, E. J., and Barkley, R. A.(2001). 아동정신병리[Child psychopathology]. (이현진, 박영신, 김혜리, 정명숙, 정현희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 Noh, S., Avison, W., and Kasper, V.(1992). Depression symptoms among Korean immigrants: Assessment of a translation of 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Psychological Assessment*, Vol. 4, pp. 84-91.
- Parker, G., Tupling, H., and Brown, L. B.(1979). A Parental Bonding Instrument. *British Journal of Medical Psychology*, Vol. 52, pp. 1-10.
- Perrino, T., Gonzalez-Soldevilla, A., Partin, H., and Szapocznik, J.(2000). The role of families in adolescent HIV prevention: A review. *Clinical Child and*

- Family Psychology Review*, Vol. 3, pp. 81-96.
- Russell, D. W., Kahn, H., and Altmaier, E. M. (1998). Analyzing data from experimental studies: A latent variabl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roac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 45, pp. 18-29.
- Shaffer, D. R. (2005). 발달심리학[Developmental psychology: Childhood and adolescence]. (송길연, 장유경, 이지연, 정윤경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원전은 2002년에 출판)
- Schwartz, S. J., Pantin, H., Prado, G., Sullivan, S., and Szapocznik, J. (2005). Family functioning, identity, and problem behavior in Hispanic immigrant early adolescents.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Vol. 25, pp. 392-420.
- Silvia, E. S. M., and MacCallum, R. C. (1988). Some factors affecting the success of specification searches in covariance structure modeling.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Vol. 23, pp. 297-326.
- Steiger, J. H. (1990). Structural model evaluation and modification: An interval estimation approach.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Vol. 25, pp. 173-180.
- Steinberg, L. (2001). We know something: Parent-adolescent relationships in retrospect and prospect.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Vol. 11, pp. 1-19.
- Waterman, A. S. (1982). Identity development from adolescence to adulthood: An extension of theory and a review of research.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18, pp. 341-358.

ABSTRACT

Ego Identity as a Mediator Between Parenting Behaviors, Peer Relationships, and Depression in Adolescence : A Structural Equations Analysis

Lee, Eun-Hee* · Jeong, Sun-Ok*

Ego identity was hypothesized as a mediator that explains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ptions of parenting behaviors (care, overprotection), peer relationship, and the depression in adolescence. High school students (N = 482) were administered questionnaires to assess their perceptions of parenting behaviors, peer relationships, ego identity, and depression. Structural equat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specify the relations among the constructs measured. Perceived paternal care behaviors and perceived paternal overprotective behaviors were not significant predictors of ego identity or depression. However, perceived maternal care behaviors and perceived paternal overprotective behaviors were significant predictors of ego identity. Peer relationship was a significant predictor of ego identity, and indirectly affected depression through the ego identity. Viewing ego identity as a mediator has important implications for the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intervention programs and counseling practice for adolescents. Finally, limitations and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addressed.

Key Words : parenting behaviors, peer relationship, ego identity, depression

투고일 : 10월 29일, 심사일 : 12월 8일, 심사완료일 : 12월 18일

* Kyungnam University